

민주나래 2기를 보내며

글 · 김수연 대학생 자원활동가 민주나래 2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민주나래 활동을 시작한 지도 이제 1년이다 되어 간다. 부푼 마음을 안고 또래의 자원활동가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전교육을 받았던 시간이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기의 활동이 끝나고 다음 기수를 모집할 시기가 왔더니 그 흐름이 놀랍기만 할 뿐이다. 활동을 마무리하는 이 무렵 그 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기 위해 이렇게 글을 써 본다.

민주나래, 그 1년간의 활동

민주나래 2기로 뽑힌 30여 명의 대학생들은 본격적인 자원 활동에 앞서 4차례에 걸친 상반기기초교육을 받았다. 교육내용은 민주주의, 리더십, 자치활동 등 넓은 분야에 아울러 있었는데 매회 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팀원들 간의 관계와 소통이 더 깊어지지 않았나 싶다. 사전교육이 마무리된 후, 내가 속했던 현장체험팀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현장체험'이었다.

저마다 알록달록 옷을 입은 어린 학생들은 아침 일찍 국회에 도착해 국회 본회의장과 헌정기념관 등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해 배워 나갔다. 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민주나래 자원활동가들도 참여했다지만 사실 나를 비롯하여 국회에 처음 가본 팀원들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탐방장소가 있다면 신촌에 위치한 이한열기념관이었는데 이 기념관은 인적이 드문 곳에 있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쉬운 곳이었다. 입구

로 향하는 계단을 밟으면서 올라가다보면 보이는 벽마다 이한열 열사에게 바치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볼 수 있는데 그중엔 '두려움과 안일의 유혹을 떨치고 일어난 작은 시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과 용기, 고귀한 희생이 민주주의 역사의 큰 물줄기를 이루었다.'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메시지도 타일 한 면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한열은 비록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으나 그 죽음이 현재의 우리들에게는 도리어 삶이 되지 않았나 싶다. 6월 달에는 '강물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라는 모토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대학생 자원활동가 합동수련회가 열렸다. 낮에는 민주화운동의 유적지였던 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일대를 답사하면서 과거에는 민주화운동 주체세력이었지만, 현재는 관심을 잃어버린 우리 대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깨우는 시간을 갖고 저녁에는 각 단체에 속해 있는 대학생 자원활동가들의 교류를 통해 20대가 함께 지향해야 할 정신과 정체성, 그리고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었다.

여름이 한창인 7~9월에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교사 연수와 제3기 서울민주시민아카데미가 시작되고 있었다. 특히 서울민주시민아카데미는 '소통'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마다 총 7번에 걸쳐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소통이라는 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어떠한 혹은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느끼게 되었고 더 넓은 소통의 길을 모색해보고자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민주나래의 마지막 활동 기간이었던 10월은 '2010 시민교육 아태대회' 준비가 한창이었다. 창원시에서 3박 4일



동안 열린 이번 2010 시민교육 아태대회는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미국과 아시아 각국의 주요 연구자, 활동가, 교사들의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나는 다른 자원활동가들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 대회 중간에서부터 참여를 했는데 관심 있는 분야의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함께 참여하면서 활동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원활동가로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밖에도 현대사교사직무연수, 청소년 민주주의 역사캠프, 4·19혁명 50주년 사료전시전,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월례모임 등 1년 동안 민주나래가 활동한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민주나래 팀원들 모두가 소소하게나마 맡은 바 책임을 다 했기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민주나래의 과제

민주나래의 역사는 사실 짧다고 할 수 있다. 이제 2기의 활동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기에 활동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틀이라든지 운영방안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다. 물론 이는 달리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되기도 했지만 활동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도 사실이다. 민

주나래에게 부여된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나래의 활동은 그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것 못지않게 단순히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 시간이 인정된 경우도 많았다. 활동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혹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에 투입되었을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교육시간도 마땅히 자원활동 시간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순히 교육을 받음으로써 인정되는 활동보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봉사활동에 그 시간을 인정해주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팀 내의 의견들이 있었다.

또 다른 과제는 바로 '스펙'으로 얼룩진 봉사활동에 대한 문제이다. 과거에 비해 봉사활동의 양과 질은 서서히 발달해가는 반면 몇몇 학생들의 봉사 동기는 반대로 점점 수산화되어 가고 있다. 즉 민주나래에서의 활동이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인맥을 쌓고 취업에도 도움을 받는 또 하나의 스펙이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자기계발의 일환으로 스펙을 쌓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야지 수단이 돼서는 본질이 왜곡되고 만다. 타 봉사기관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민주나래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사업회 소식

민중가족 등산대회 열려



지난 달 6일 사업회는 대전시 금강로하스대청공원과 구룡산에서 제3회 민중가족 등산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등산대회에는 유가협, 민가협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전국의 기념계승단체, 유관단체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해 구룡산 등산과 인근 공원 산책, 마당극 관람 등의 시간을 보냈다.

설립9주년 기념식 열려

지난 달 12일 사업회는 설립 제9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함세웅 이사장의 기념사와 안병욱 이사의 특별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함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사업회 초기의 설립 정신, 민주화 운동의 태동 정신을



생각하고, 전태일 노동 청년의 고귀하고 순수한 뜻을 간직하고 지내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특별강연에서 안 이사는 “한국의 역사는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이룩된 역사이며 한국 사회는 그 역동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계승, 전파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사업회의 지난 10년 간의 과정은 민주화의 또다른 성과로 평가할만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고 말했다. “사업회 사업들을 외화하고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또 유관단체와 연결고리를 만들고 대외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기념식을 마치고 임직원은 마석모란공원으로 이동해 묘역 정화활동을 했다. 민주열사가 묻힌 묘역에 서서 열사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변을 청소하며 사업회의 설립 정신과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다.

4·19 50주년 기념 사료총집 발간 보고대회 열려



4·19 50주년을 맞아 추진된 4월혁명 사료총집 발간 보고대회가 지난 달 29일 사료총집 발간위원과 민주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1부는 4월혁명 50주년과 사료총집 발간의 의미를 총점검하기 위한 학술심포지엄이 2부에는 발간보고대회가 진행됐다.

사료총집은 총8책으로 구성됐다. 1책은 사건일지, 2책은 정부·국회·정당 등의 기록, 3책은 신문기사, 4책은 재판기록, 5책은 선언·성명·수기, 6책은 외국 기록, 7책은 사상자 기록과 수습활동, 8책은 사진기록 등으로 이뤄졌으며 DVD로도 제작됐다. (문의: 사료관 02-3709-7542)

2010 사업보고대회 개최



사업회는 지난 달 29일 서울 명동 YWCA에서 2010 사업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지역 기념, 계승단체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보고대회에서는 2010년 사업회 사업에 대한 보고 영상 상영과 축사, 기념 공연 등이 있었다.

서울시 교육청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진행



지난 달 2일 사업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사업회 소식

사업회 3기 이사진 마지막 이사회 개최



사업회 3기 이사진의 임기가 이번 달 2일 종료된다. 3기 이사진은 2일 이사회를 마지막으로 지난 3년 간의 임기를 마친다. 3기 이사진에는 함세웅 이사장을 비롯, 유영표 상임 부이사장, 박석무 부이사장, 문영희 부이사장, 이규정 부이사장, 이해학 부이사장, 김영준 상임이사, 성유보 이사, 효림 이사, 이학영 이사, 윤순녀 이사, 안병욱 이사, 정현백 이사, 장임원 이사, 이석태 이사가 함께 활동했다.

조성만 평전, 최성묵 평전 원고 집필 완료

사업회는 2010년 민주화운동 인사의 자서전, 평전 집필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4월 12건의 지원서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조성만 평전과 최성묵 평전이 원고 집필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성만 평전은 조성만 열사 추모모임인 '성만사랑'이 중심이 되어 준비를 했으며 소설가 송기역 씨가 집필을 했다. 최성묵 평전은 차성환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가 맡았다. 완성된 원고는 각 단위에서 출판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원문 서비스 될 예정이다.

2010 나눔의 김장 품앗이 행사 진행



사업회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민족문제연구소, 청년 통일문화센터 푸른공감과 공동으로 2010 나눔의 김장 품앗이 행사를 실시했다. 지난 달 27일 진행된 김장 품앗이 행사에는 배은심 회장을 비롯한 유가협 회원들과 조순덕 의장 등 민가협 회원, 푸른공감, 주거연합 회원, 시민사회 단체 참가자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충북 충주 월악산 자락에 있는 있는 공이리에서 참가자들이 담근 김치는 민주화운동 가족과 독거 노인들에게 택배 배달된다.

4월혁명 50주년 기념 연구총서 1, 2, 3권 발간과 출판기념회 개최



4월혁명 50주년을 기념하여 기념사업회 연구소(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기획한 4월혁명 50주년 기념 연구총서가 총 6권 중 3권이 먼저 출간되어 지난 달 26일 오후 5시 사업회 대회의실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민주화운동사 3권 완간과 민주주의 강의시리즈 4권 완간 출판기념회를 겸했는데 함세웅 이사장, 유영표 부이사장과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등 집필자를 포함하여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연구총서 1권 '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는 2009년 4월부터 민주화운동 심층적 연구사업으로 기획되어 원고 공모와 집필의뢰를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정근식 연구소장과 이호룡 책임연구원이 편집하였다. 4월혁명의 성격과 기원, 영향과 계승 및 제도화 등 4월혁명을 다각도로 분석 조명하였다.

연구총서 2권 '지역에서의 4월혁명'은 2010년 4월부터 전국 10개 지역에서 개최된 4월혁명 50주년 기념 지역 학술토론회의 성과를 모아낸 것으로 정근식 연구소장과

권형택 연구위원이 편집하였다. 이번 2권의 발간에는 전국 각 지역의 학자들이 고루 참여하여 그동안 소홀히 되었던 지역운동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미있는 성과로 보인다.

연구총서 3권 '혁명과 여성'은 4월 17일 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여성사학회, 한국여성철학회와 기념사업회가 공동주최한 제3회 여성주의 인문학 학술대회 '4·19혁명과 여성'의 성과를 모으고 일부 논문들을 보충하여 펴낸 책이다. 여성주의 학자들이 혁명과 여성에 대해 철학, 문학, 역사적 고찰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최초의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 연구총서 시리즈는 연말까지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정치연구회와 공동으로 4권, 5권, 6권이 추가로 발간될 예정이다.

🌀 한국민주화운동사 전3권 완간



사업회가 한국민주화운동사 제3권을 발간했다. 한국민주화운동사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종합하고, 이를 통해 민주화운동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한국민주화운동사는 모두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발간된 제1권은 한국전쟁 시기부터 유신 이전의 제3공화국 시기까지 전개되었던 민주화운동을 다루었고, 지난 해 발간된 제2권은 유신체제 시기의 민주화운동을 다루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제3권은 유신정권 붕괴 이후부터 6월민주항쟁을 거쳐 문민정부 수립 이전 즉 1992년까지 전개된 민주화운동을 다루고 있다.

한국민주화운동사 제3권은 5부로 나누어 서술했다. 1부에서는 5·18민중항쟁기, 즉 1979년 10·26정변 이후 '서울의 봄' 시기부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까지의 시기에 전개된 민주화운동을, 2부에서는 전두환 정권기에 전개된 민주화운동을, 3부에서는 6월민주항쟁기, 즉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난 시기부터 87노동자대투쟁까지의 시기에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4부에서는 노태우 정권기에 전개된 민주화운동을, 5부에서는 1980년대 각 부문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서술했다.

사업회는 또한 4월혁명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4월혁명연구총서(전6권) 1~3권을 발간한 데 이어 연말까지 전 6권을 모두 발행할 예정이다.

🌀 『민주주의 국제 협력기관: 지구민주화와 공공외교의 지형도』 발간

사업회가 2008~9년 실시한 민주주의 국제협력을 이끌



고 있는 각 국가, 국제기구, 네트워크 및 포럼 등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분석 연구가 책으로 묶여 발간되었다. 『민주주의 국제 협력기관: 지구민주화와 공공외교의 지형도』는 민주주의 국제협력에 대한 국내 인식 확대와 다른 국가의 사례를 통해 이것이 국

제 지원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민주주의 심화에 기여한다는 사례들을 살펴보기 위해 발간되었다.

연구의 동기는 21세기 국제질서의 새로운 흐름을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주체적으로 읽어내기 위한 것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면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새로운 주자로 들어선 한국이 후발 주자의 이점을 살려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민주주의를 결합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내고자 함이다. 연구를 위해 주요 민주주의 지원기관을 직접 방문 조사하여 이들 기관의 운영과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고, 이를 통해 국제 민주주의 교류협력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고취하고 관련 연구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이 지향해야 할 모델을 고민해 보고자 했다.

이 책 1부에서는 미국, 독일을 비롯한 7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국제협력의 기구, 예산, 조직 편제,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있다. 2부는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들 차원에서 재편된 민주주의 국제협력을 소개하고 있다. 책은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정가: 30,000원, 구입/유통 문의: 리북출판사, 02-322-6435)

2010 사업회 발간도서 목록



민주주의 강의 4
- 현대적 흐름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편 /
오름 / 22,000원 / 한국민
주주의연구소
02-3709-7646 /
9월 발간



한국민주화운동사 제3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편 /
돌배개 / 35,000원 / 한국
민주주의연구소 02-
3709-7644 / 11월 발간



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
정근식, 이호룡 편 / 선인
/ 37,000원 / 한국민주
주의연구소 02-3709-7644
/ 11월 발간



지역에서의 4월혁명
정근식, 권형택 편 / 선인
/ 24,000원 / 한국민주
주의연구소 02-3709-7643
/ 11월 발간



혁명과 여성
김은하, 윤정란, 권수현 편
/ 선인 / 20,000원 / 한국
민주주의연구소
02-3709-7643 /
11월 발간

다시 보는 한국 민주화운동:
기원, 과정 그리고 제도
선인 / 20,000원 / 한국민주주의연구소
02-3709-7643 / 12월말 발간예정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논리
홍석률 편 / 선인 / 20,000원 / 한국민주주의
연구소 02-3709-7643 / 12월말 발간예정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와 민주주의
안현호 편 / 선인 / 20,000원 / 한국민주주의
연구소 02-3709-7643 / 12월말 발간예정



시민교육 - 2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4,500원 / 교육사업국
02-3709-7622 / 6. 1.
발간



시민교육 - 3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4,500원 / 교육사업국
02-3709-7622 / 12. 1.
발간예정

시민교육 현장 지침서
김기현, 김희은, 송창석, 최현, 이해주 /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 비매품 / 교육사업국
02-3709-7622 / 12.17. 발간예정

(가제)4.19혁명
윤석연 / (주)한겨레출판 / 10,000원(예정) /
교육사업국 02-3709-7622 / 12.15. 발간예정

시민교육 활동 길잡이
“우리, 시민교육 할래요?”
곽형모, 임상환, 이은숙, 서미화, 조철민, 최지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비매품 / 교육사업국
02-3709-7626 / 11월말 발간예정



**The History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Korea**
이명식 /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 비매품 / 기념사
업국 02-3709-7615 /
5월 발간



민주주의 국제 협력기관
이정옥 외 / 리북 /
30,000원 / 기념사업국
02-3709-6515 /
10월 발간

2010 KDF Review(가제)-소식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비매품 / 기념사업국
02-3709-7615 / 12월 발간예정



4월혁명 사료총집
4월혁명사료총집발간위원
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비매품 / 사료관
02-3709-7542 /
11월 발간



나의 믿음은 길위에 있다
(박형규 회고록)
신홍범 정리 / 창비 /
20,000원 / 4.19 발간 /
사료관 02-3709-7546



원풍모방 노동운동사
원풍모방노동운동사 발간
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
업회 기획 / 김남일 정리 /
삼이보이는창 / 35,000원
/ 사료관 02-3709-7546

민주화운동 구술사료 열람집
《1970년대 학생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비매품 / 사료관 02-3709-7546

일본엔네티스트 關西그룹과 한국민주화운동
《그때 우리는 하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 민주
화운동기념사업회 / 비매품 /
사료관 02-3709-7546